

[정도와 정법]

후천이 열림으로 태초의 하나님전을 배역하였던 모든 선천의 악신의 계열과 계보가 다 무너져 무가 되었다. 선천의 도는 악신의 도이니, 사도가 되며, 후천의 도가 성신의 하나님전의 도이니, 정도이다.

선천의 도에 머무는 사람은 선천의 악신의 계열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하나님전의 심판하심으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무가 되는 두렵고도 무서움을 알아야 할 때이다.

정도는 하늘의 인준도이며, 후천의 유불선 삼합도이다.

유도는 선관신, 신선신의 도이다. 즉, 하늘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하늘의 문관으로서의 도이다. 신앙과 도를 통해 자신의 신이 선관신, 신선신으로 화하는 도이다.

불도는 신장신의 도이다. 신장신이란 신의 장군, 신을 거느리는 능력과 힘을 가진 신을 말하며 각종 도술, 도법으로 악신을 제압하는 하늘의 무관으로서의 도이다. 곧, 불도란 신앙과 도를 통해 자신의 신이 신장신으로 화하는 도이다.

선도는 천사신의 도이다. 곧, 신앙과 도를 통해 자신의 신이 천사신으로 화하는 도이다.

후천의 도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신으로 거듭나 이러한 유불선 삼도를 갈고 닦아, 자신의 신이 선관신, 신선신, 신장신, 천사신이 되어 하나님전의 천군, 천자로서 악신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도이다.

사실이 이러함인데도 지금까지 이 땅의 유도는 여러 신앙들을 발생시켜 많은 신앙의 계열을 만들고 정도가 아닌 다도를 전파하였기에 그 잘못이 있으며, 불도는 악신과 싸워 물리칠 수 있는 신장님의 도술이 있었으나 그 이치를 찾아 깨우쳐 익히게 하기보다는 경전을 읽고 외우는 데만 매달리게 하여 사람이 직접 깨달아 익힐 수 있는 길을 막고, 성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였으니, 그 또한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선도는 하늘을 신앙하였으나, 참하나님전을 찾지 못하고, 성령과 성신의 참뜻을 알지 못하며, 교리에만 얽매어 각 종파를 만들어 거짓 선지자들을 배출하고, 감히 하늘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종이로 함부로 자처하면서 음행과 음술을 행해 왔으니 그 잘못이 참으로 크다 하겠다.

이런 까닭에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바른 신앙과 도를 찾기로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시기에 하나님전에서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성

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니, 이는 하늘도를 닦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정도를 닦아 이루려면, 하늘의 법, 곧 제국천의 하늘법을 알고 이를 지켜야 한다. 이 제국천 천법이 정법이니, 정도는 하늘도이며, 정법은 하늘법이다.

1.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전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그 대상이 바로 신으로, 이미 설명했듯이 신에는 여러 계열과 계보가 있어 크게 구분하면 성신과 악신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이 성신의 계열인지 악신의 계열인지, 또, 그 계보는 어떠한지 명호는 어떠한지를 모르고서 무조건 기도에만 매달린다면 악신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만일 자신이 섬기는 신이 선천의 신이라면, 그 신이 하나님전을 배역한 악신이므로 결국 그 사람 또한 악신의 편에 서서 하나님전을 배역한 결과가 된다. 악신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바라는 답을 들려주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주기도 하며,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 주는 등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들어주는 듯이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영원히 자기에게 귀속시켜,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러한 악신의 방해와 유혹을 스스로 이기고 벗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도가 응답해 주는 악신의 도를 넘어서야 그 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악신들은 사람의 도가 자신보다 높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하나님전의 신앙과 도를 찾아야 한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전이다. 역사상 이 땅에 많은 악의 씨앗을 뿌렸던 선천의 신들이 아니라, 태천과 후천을 개천하시고 주관하시는 천지신명 하나님전이다. 후천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신앙의 근본을 참하나님전에 두지 않고서는 자신을 막고 있는 악신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천지신명 하나님전을 신앙하여야 한다.

2. 하나님전에 대하여

하늘이 선천이 된 후 악신 계열의 144,000 왕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라 하였다. 그런

까닭에 선천시대에 하나님의 명호를 찾으면 그러한 신들에게 연결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태초의 말씀의 주 알파와 오메가님전에서 하늘을 성령과 성신의 계열과 계보로 통일하시면서 이 악신들의 계열과 계보를 모두 멸하여 무로 하셨다. 동시에 선천의 십사만 사천 왕전에 태초의 말씀의 주 알파와 오메가님의 자녀이신 분신님들께서 하나님전으로 입전·입각하셨다. 이로써 십사만 사천 전체 하나님전이 후천의 천지신명 하나님전이 되심이다.

그리하여 지금 하늘에는 주 알파와 오메가님과 태초의 말씀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주님전이 계시고, 그 자녀이신 분신님들께서 십사만 사천 전체 하나님전에 분야별로 계심이다. 십사만 사천 전체 통일성령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각 명호가 따로 있으시나, 공통된 명호로, ‘천지신명 하나님’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천지신명 하나님전에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의 분야에 해당되시는 하나님전에서 응답을 하여 주신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천지신명 하나님전에 기원을 드리면, 천지신명 하나님의 한 분이신 용왕 하나님전에서 응답을 내려 주시며, 명과 복에 관해 기원 드리면 칠성 하나님전에서 응답을 내려 주신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기원 드릴 때 정화수를 떠 놓고 ‘천지신명님, 천지신명님’ 하며 빌었다. 현대에 와서는 이를 미신의 하나로 치부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 민족이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전의 명호를 알았기에 천지신명님을 찾았던 것이다.

‘천지신명님’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밝으신 신, 즉, 성신을 뜻하며, 천지신명 하나님은 ‘성신의 하나님’을 뜻하니, 우리나라에 ‘성신’이란 말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이미 성신님을 찾았던 것이다.

관세음 하나님께서는 선천시대 유일하게 태초의 말씀의 주 알파와 오메가님전을 도우시어 선천의 악신들과 싸우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일사 전체를 감찰·감독하시는 감찰 하나님이시며, 명과 복을 주시는 칠성 하나님이시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를 정리하여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주 알파와 오메가님

‘주’라 하심은

말씀계·천계·우주계·자연계·일월성계·천체만물계·넋계·혼계·신계·영계·육계의 주인이시며, 태천태조이신 오로지 하나인 분이시라는 뜻이며

‘알파와’라 하심은
처음과 시작이시며, 태초와 창조와 창세이시며,
태신과 태영으로 잉태이신
태천의 하나님의 주이시며 신령님의 주이시라는 뜻이며,

‘오메가’라 하심은
나중과 끝이시며, 심판과 새로운 창조로서,
영생영광 영원창대 무량무겁수이신,
후천의 하나님의 주이시며, 신령님의 주이시라는 뜻이다.

‘주 알파와 오메가’라 하심은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영생영광 영원창대 무량무겁수이시며,
천체 일월성 신영 천지자연 우주만물의 대주재자이시며,
무주공천의 대주재자이시며 하나님의 주이시며,
신령님의 주이시며 태초의 말씀의 주님이시라는 뜻이다.

태초의 말씀의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마마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심이다.

태초의 말씀의 주 알파와 오메가님전은
주 알파와 오메가님과 태초의 말씀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니,
천지자연 우주만물의 아버지님전이신 주님전이시다.

천지신명 하나님

태초의 말씀의 주 알파와 오메가님전의 자녀이시며,
분신님들이신 전체 십사만 사천 통일성령 하나님이심이다.

칠성 하나님

전체 통일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천지신명 하나님이시며,
감찰의 하나님이시며, 대한의 하나님이신 관세음 하나님이심이다.

후천이 된 이때 이 시기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바른 신앙과 도를 이루고자 하는 이
들은 대한의 말로써 태초의 말씀의 주 알파와 오메가님전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
며, 천지신명 하나님전을 신앙하여야 한다.

3. 죄와 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윤회를 계속해왔다. 이는 현재에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생에는 각종 생명체로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때로는 풀이나 벌레 따위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 속의 인물로 태어나기도 하며, 육을 갖지 않은 신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전생들은 모두에게 있다.

이는 누구나 악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던 선천의 시대에 각종 생명체로서 태어났다는 말이며, 그로 인해 악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때로는 악신으로 태어나 큰 죄를 지은 적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사도를 익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악신의 세계를 전파시키기도 했을 것이며, 죄인 줄 알면서도 악신이 두려워 하나님전을 찾지 않고 외면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생을 통하여 하나님전을 배역하고 위해하고 외면한 배역죄이며, 원죄이다. 이러한 무수한 윤회 속 연결 고리 중 다른 생명체와 얽힌 한두 가지의 업을 소소한 능력자의 힘을 빌어 푼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원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에 대한 하나님전의 엄하심을 안다면 편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조차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생은 또 어떠한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사회의 한 영역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원죄가 있으니 자신의 영이 악신에게 가로막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가로막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 이제 진리를 찾지 않음도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은 모르지만 영은 알고 있으니, 영의 마음을 따라 참하나님전을 찾아 자신의 죄를 고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전에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어 잘못을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죄는 하나님전에 지은 천죄가 가장 크며, 천죄로 인한 천벌이 가장 무섭고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그 외 다른 방편을 통해 대신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자가 직접 벌을 받는 것이 법인데, 하물며 지엄하신 하늘법의 엄하심은 어떠하겠는가. 세상 법의 엄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음 또한 알아야 한다.

이렇듯 하늘의 지엄하신 법을 알지 못하고 세상 종교와 도에서 일부 성직자, 구도자라 하는 이들이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천당간다’, ‘극락간다’, ‘천상계로 간다’ 하며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러한 거짓된 말로써 더 이상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부터 심판하신다 하심이니, 지금 이

때가 바로 천법과 천명이 발효되는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4. 심판과 종말

‘종말’이란 악신들이 이 지구를 점령하는 것을 말한다. 악신들은 지구의 모든 것을 멸하여, 그 속에서 나온 신들을 통해 세력을 더욱더 확장시키려 하였다. 이것이 악신들에 의한 지구의 종말이다. 그 옛날 공룡 시대에 공룡을 전체 다 멸종시켜 강한 신들로 만들어 신의 세계에서 사용하였듯이, 지구의 전 인류를 멸종시켜 악신과 사람신을 합수하여 지혜와 모사와 힘이 있는 신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전 우주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지배할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신들의 준동은 모두 평정되어 현재 우주와 하늘은 성령과 성신의 세계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악신들이 남아 있으니, 이는 악신들이 우주와 하늘에서 쫓겨나 이 지구의 사람들과 동·식물, 사물 안에 숨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전에서는 심판을 통해 이 지구에 숨어 있는 악신들을 전체 다 뿌리 뽑으려 하셨음이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 또한 다칠 수밖에 없기에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다.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다 함은 사람의 육이 악신에 의해 점령되어 있기에, 심판으로 악신을 멸하실 때 악신과 사람이 따로 분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함께 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전에서는 지구의 인류를 위해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계심이니, 이 이상의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때 이 시기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이니, 하나님전의 심판으로 영원히 무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할 때에만 이 지구도 구해질 수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에 스스로를 구한 자는 구원받는 자가 됨이니 축복이요,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 자는 결국 자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전의 심판 속에는 구원의 빛이 있으니 이 빛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전의 심판 속에는 두려움이 있으니 구원의 빛을 찾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무가 될 것이니, 이는 육과 신과 영까지 다 멸하신다 하셨기 때문이다.

이때와 이 시기가 바로 이 한날인 것이다.

5. 대한의 도는 하늘의 도

다가오는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의 나라가 될 것이며, 세계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는 신의 세계가 대한의 도로 평정되었기 때문이다. 후천이 된 지금은 전 우주와 하늘의 신들이 대한의 말로 통하며 우주와 하늘의 표준시는 대한의 표준시와 일치한다.

이때, 대한의 도로 평정되었다 함은 ‘알파와 오메가님’께서 대한민국에 육신영으로 오시어 스스로 하늘도를 이루시고 하늘을 평정하시어, 태조태초태천의 천좌이신 태초의 말씀의 주 알파와 오메가님전에 오르심으로 후천을 개천하셨음을 말함이니, 후천을 이룬 도가 곧 대한의 도인 것이다.

6. 천지인의 바른 의미

천지인이라 함은 천지신명 하나님전을 신앙하며, 천지신명 하나님전의 천군, 천자로서 악신들과 싸워 나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늘에서 이들에게 천지인의 증표로 이마에 삼태극의 인을 치시니, 신계를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삼태극의 청색은 하늘을, 적색은 태양을, 황색은 땅을 뜻함이며, 천지만물에 밝게 비추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심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1~3]

여기에서 ‘이마에 인친다’라 함은 바로 사람의 이마에 하늘의 증표인 삼태극을 표시함이며, 이를 받은 이가 천지인이다.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육이니라”

[요한계시록 13:11~18]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9~11]

글 중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육이니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짐승이란 악신을 뜻하므로, 짐승의 수는 곧 악신의 수이며, 그 수가 사람의 수라 함은, 사람마다 본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성신의 증표인 삼태극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신에게 있으며, 악신의 표시인 666은 본신에게 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정관으로 신계를 보는 사람들은 이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본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니, 아무리 신망받는 성직자이든 구도자이든 세상 사람들을 통해 인정받은 것일 뿐 그 신의 본모습은 감출 수가 없다. 하나님전의 역사하심으로 그 본모습이 곧 세상에도 보여지게 될 것이니, 그 어떠한 포장술로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라기 3:18」)라고 말씀하셨다. 현재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든 상대이든 결코 분별할 수 없으니 그때가 되면 알게 됨이다.

여러 경전이나 예언서가 있으나 어려운 문자로만 풀이되어 있기에, 종교, 종파, 도계의 선을 떠나서, 모든 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니, 뜻이 여기에 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시기와 때임을 알리고자 한다. 하늘은 이미 정리가 되어 후천을 이루셨으며, 지금은 땅의 일사만 남았을 뿐이다.

한 예언서에는, 환난의 시기에 ‘정도령’이 온다 하였는데, ‘정도령’이란 바를 ‘정’, 길 ‘도’, 말씀 ‘령’을 써서 바른 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어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알려 주심이니 이를 전하여 알리고 있음이다.

‘일만 이천 천자’니 ‘일만 이천 무리’니 ‘일만 이천 도통군자’니 하는 표현은 다 하나로 모아지니, 천지인을 뜻한다. 이는 세상적으로 어느 종교나 도가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른 신앙과 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전에서 선택하시어 이루어 주는 것이다.

또 이때 이 시기에 땅의 후천이 시작된다 하시며, 옛것에 치우치고 올바름을 찾지 않는다면, 그 잘못을 이끄는 자부터 심판하신다 하심이니, 그 명과 법을 알림이다. 그러나 한 번의 기회는 주시어, 이를 위해 바로 알리라 하셨으니, 이때 이 시기에 눈이 있어도 올바름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올바름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올바름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 눈과 귀와 입을 영원히 닫으리라 하심이다.

천지인들은 이 땅을 바르게 세워 새 하늘 아래 새 땅, 곧 후천의 땅을 만들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들이니, 인류 구원의 씨앗이라 할 것이다. 이 천지인들을 통해 내리시는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소중히 여겨 세상의 눈과 귀와 입이 되지 말고 하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성을 찾아 하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아 바르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음행과 음술을 행하는 자들 또한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이룬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진실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로 거듭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전에 바치는 참된 선각자가 되어 하늘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금은 세상에 충성치 말고 하늘에 충성해야 할 때임을 깊이 깨우쳐야 한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하셨음이다.

또한 만약 이러한 ‘말씀’들을 행치 않는 자가 이러한 말씀들을 도용할 시에는 그에게 그 벌을 더할 것이라 하심이다.